



우리 동네는 사람이 적다하여 학교도 문닫고 폐허가 된 동네에 끝까지 문열고 기다리는 하얀색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객지에서 신앙생활 하던 자녀들이 찾아와 들르는 곳, 이번 설 주일 낮 예배에 맨 뒷자리에 앉았던 낯선 얼굴이 있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맥 시아버님은 철저하게 산을 섬기는 아주 무속신앙으로 완고하신 분입니다.

몇 년 전 할머니가 교회 나오실 때도 얼마나 무섭게 야단을 치셨는지 주눅이 들어 아직까지도 교회에 못 나오는 우리 동네에서도 유별나신 분인데 그 맥 큰 아드님 내외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다니 놀랍고도 반가운 일입니다.

"예배드리고 집에 갔더니요, 남편이 고향교회라 궁금했나봐요 '야!, 교회에 사람 몇이나 있드나?' 하는 거 있죠. 궁금하면 가봐 나는 지각을 했더니 앉을 자리도 없이 꼭 찻더라 '정말이야 교회에 사람들 많아?' '진짜라니까!'"

그 말에 확인이라도 하듯 저녁에 함께 나온 정배씨를 보고 놀란 건 우리 교우들이었습니다.

"아니 저거 정배아녀? 원 시상에 정배네가 교회를 다 댕겼네——"

교회라면 쳐다도 안보던 할아버지가 수요일 저녁 술 한잔 드시고 며느리와 마주 앉아

"김목사 그양반이 나랑같은 김해깡가다. 맘이 천심이구 동네 사람들 현태두 참 잘한다 나는 교회는 안 가봐두 그 내막은 현히 덜다본다."

그 말 속엔 며느리의 신앙생활을 눈감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무릎을 꿇고 상기된 모습으로 앉아있던 정배씨는 고향마을 예배당에 이제야 들어와 보니 오늘도 변함없이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모습이 고마웠던 모양입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변하더라도 답답해서 뛰쳐나가거나 외로워하지 않고 묵묵히 시골 동네를 지키는 시골지기가 되어 늦게라도 돌아올 또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한다는 사명감 같은 게 불끈 다져집니다.



◀그땐 그랬지▶ 송충이 잡기
 선생님 인솔하에 모두 산에 올라가 송충이를 잡던 국민학교 시절. 그때는 송충이가 왜 그리 많았던지요. 아이들은 징그럽다고 하면서도 공부 안하고 산에 올라 간다는게 그저 즐거웠습니다. 나뭇가지 꺾어 젓가락이나 집게처럼 만들어 송충이 털이 몸에 닿을까봐 조심하면서 잡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 사람당 몇 마리씩 잡아야 한다고 할당을 하시고서도 한번도 그 수를 해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징그럽기만 하던 '송충이잡이'도 다시 하고픈 추억으로 남아 그 시절을 아름답게 합니다.

| | | |
|--|--|--|
|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 '2004년 교회생활' '바보같은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
| 제6권 4 호 |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 2004년 1월25일 |
|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 | |

이런 사람과 결혼하라



내가 평안히 살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하시니이다. (시 4:8) holytoon.com

만남에 대하여 진정으로 기도해온 사람과 결혼하라
 봄날 들녘에 나가 쭈크와 냉이를 캐어본 추억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된장을 풀어 쭈국을 끓이고 스스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라
 일주일 동안 야근을 하느라 미처 채 깎지 못한 손톱을 다정스레 깎아주는 사람과 결혼하라
 콧등에 땀을 흘리며 고추장에 보리밥을 맛있게 비벼먹을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라
 어미를 그리워하는 어린 강아지의 똥을 더러워하지

않고 치울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라
 가끔 나무를 꺼안고 나무가 되는 사람과 결혼하라
 나뭇가지들이 밤마다 별들을 향해 뻗어나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결혼하라
 고단한 별들이 잠시 쉬어가도록 가슴의 단추를 열어주는 사람과 결혼하라
 가끔은 전깃불을 끄고 촛불 아래서 한 권의 시집을 읽을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라
 책갈피 속에 노란 은행잎 한 장쯤은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밤이 오면 땅의 벌레 소리에 귀기울일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라
 밤이 깊으면 가끔은 사랑해서 미안하다고 속삭일 줄 아는 사람과 결혼하라
 결혼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랑도 결혼이 필요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것이며
 결혼도 때로는 외로운 것이다.

-정호승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중에서-

◀남편 기 살리는 말▶
 "당신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남편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당신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아내 기 살리는 말▶
 "당신은 멀리서도 한눈에 띄어!"
◀아내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바지가 터지겠다"

